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 주일



‘마음의 거리’

‘세계의 걱정거리’(What Worries World)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저는 ‘코로나19’일 것이라고 추측했었는데,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1위, ‘실업’(일자리) 문제가 2위였고, ‘코로나19’는 3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며 ‘먼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져 있었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는 소리는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어떤 기자의 말이 참 마음을 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희년 선포 말씀을 듣고 그분을 좋게 말했던 모든 이들이, 이방인을 언급하는 말씀을 듣자 화가 잔뜩 났다고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은총의 사례가 선민의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렀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 거리를 넘어 인간이 만든 수많은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해외 원조 주일을 맞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특별히 절대적 빈곤과 불평등의 삶을 견디어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양새의 거리 안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방인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오늘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몰고 가 떨어뜨리려고 했듯이, 힘겨운 삶 안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북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거리를 좁히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친교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오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7)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어 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기원 마르첼리노 신부 | 반송본당 1보좌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예레 1,4-5.17-19
화 답 송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제 2 독 서	1코린 12,31-13,13 또는 13,4-13
복 음	루카 4,21-30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희망을 품고 함께 걸어갑시다(「모든 형제들」, 55항)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

이 년이 넘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위기는 세계 모든 이의 일상을 빼앗고 불안에 떨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삽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모든 형제들」, 32항)”라고 하시며, 우리는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의 위기를 이겨 낼 수 없다는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촉구하시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분쟁과 불의로 위기에 있는 이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를 빈번히 듣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임을 고백하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또 응답하려고 노력하였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 곁에 머무르시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함께 나누신 것처럼(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참조),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용기와 과감한 행동을 절실히 요구하십니다(「모든 형제들」, 67항 참조).

희망을 품고 함께 걸어갑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뛰어넘는 오직 ‘우리’만 있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초대하십니다(「모든 형제들」, 35항 참조).

해마다 해외 원조 주일에 모인 한국 교회 신자들의 기도와 사랑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배타적인 이들의 경계를 무너뜨려 ‘우리’만 있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과 불의로 고통 받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만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한국 교회의 모든 신자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2022.1.30. **해외 원조 주일**
세계에 전하는 한국 교회의 사랑

인류는 한 가족, 우리는 모두 형제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모든 형제들」 55항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 가톨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기구입니다.

주요 해외 원조 사업

기후 위기 대응	기아 퇴치	난민 지원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긴급 식량, 식수, 위생용품을 지원합니다.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농업개발과 식량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들에게 식량, 주거, 의료, 교육, 생계 회복 사업을 지원합니다.

Caritas Korea 후원문의 02)2279-9204 | 홈페이지 www.caritas.or.kr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2022년 1월 30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정신철 주교

교구청 신축공사

찬미예수님!

교구청신축추진위원장 최봉원 야고보 신부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가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구민 여러분 모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구청 신축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성어린 기도와 여러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금은 마산교구청, 사제관, 수녀원 건축에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건물의 2층에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과정은 교구보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저도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0일
교구청신축추진위원장
총대리 최봉원 야고보 신부



지난 12월에 2차 조경을 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 수목간벌, 벌목을 하여 어수선했던 현장이 산뜻해졌습니다.

현재 신축공사의 진행은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대부분이며, 본관 1층 거푸집, 수녀원동 옥상 바닥, 사제관 2층 벽체 및 기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입니까?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현실의 어려움

코로나를 2년이나 겪다 보니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치아가 없으신 할머니 입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술술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몸에는 이가, 뱃속에는 회충이 득실거렸던 ‘위드 벌거지’ 시대였습니다. 코로나 사정이 아직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교회는 다시금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역사에 작용하는 힘은 광범위한 원인으로부터 생긴다.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는 ‘시련’으로써, ‘견뎌나가야 할 도전’이며, 이 시련들을 겪어가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점차 서로 달라져가게 된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 1장

문명을 이루게 한 것은 ‘쉬운’ 조건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6장

어렵지만 의연하게

2021년은 한국천주교회가 첫 사제들인 김대건, 최양업 두 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희년으로 선포한 한 해였습니다. 이 희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죽음이 설쳐대는 순교 당시의 기막힌 처지 속에서도 땀땀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신 두 분의 모습을 기리고 그 삶을 본받아 실천하려 했습니다.

인류의 지혜를 품은 위대한 신화들은, 사람이 문명을 이루는 것은 뛰어난 자질이나 지리적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임을 암시한다. 이때까지 예가 없었던 노력을 하도록 일깨우는 특수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도전과 응전이다. -5장 1절

교회가 위기?

무릇 소출이 잘 되려면 농부가 열심히 논밭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진 논바닥이 되고 풍부한 밭뽕기가 되어 거기로부터 작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정도 이와 같음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자분들의 신앙 상태가 더 열악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신부님들도 최선을 다해 보지만 한계를 토로합니다.

문명 쇠퇴의 성질은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창조적’ 소수자가 창조력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과, 그에 응해서 다수자 쪽에서 충성과 모방을 거둬간다는 것과, 그 결과 전체로서의 사회가 사회적 통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13장

비창조적인 다수가 창조적인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라가는 길인 ‘모방’은, 영감받은 창의성을 기계적, 표면적으로 모방하는 일종의 ‘훈련’이다. 그러나 이 길에는 현저한 위험이 뒤따른다. 지도자들이 추종자들의 기계성에 감염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경우 창조적 지배자는 ‘지배적’ 소수자가 되고, ‘훈련생’들은 다루기 힘들고 따돌림받게 된다. -16장 1절

우리의 태도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사랑하고도 사랑하는 우리 신부님들, 온 마음으로 투신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체념하고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역사가 나타내는 바에 따르면, 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집단이 다음 도전에도 성공적인 응전자가 되는 일은 드물다. 한 번 성공하면 다음번에는 ‘노를 멈추고 쉬는’ 일이 많음을 본다. 유대인은 구약의 도전에는 성공했으나 신약의 도전에는 실패하였다. -16장 3절

인간의 끝없는 약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실패를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14장

진리에 대한 내적 갈증

한국천주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것도 어느 누가 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내적 갈증이 복음을 들여오게끔 하였습니다. 성직자 한 분 없는 가운데서도 순교의 칼을 기꺼이 받아 가며 들불처럼 살아남아, 조선 천주교회는 진리에 목마른 우리 백성에게 영적 생명수가 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진정한 진보는 ‘정기화精氣化’라고 정의한 과정에 있다. ‘정기화’는 물질적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도전’,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데 사회의 정력을 방출하게 한다. -10장 2절

제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제는 자신의 멋진 장기와 수단을 보여 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혹은 약점을 끌어안고 깊이 묵상하며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총의 삶을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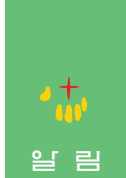
1. 칼을 가진 구세주, 이들은 세계국가의 창설자요 유지자들이다. 그러나 칼로 이룬 모든 것은 무상하다. 2. 타임머신을 가진 구세주, 복고주의자와 미래주의자들이다. 이들도 칼을 잡으며 칼을 갖는 자의 운명에 시달린다. 3. 왕의 가면을 쓴 철학자, 이는 플라톤의 치료법이다. 철학자의 초탈과 정치적 권력자의 강압적 수단의 모순 때문에 실패한다.
-20장 2,3,4절

“칼을 가진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예수는 먼저 베드로의 칼이 낸 상처를 고쳐주고 나서 더없이 큰 굴욕과 고통을 받기 위해 스스로 자기의 몸을 내맡긴다. 그의 힘이 적을 대적할 수 없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무기(*인간적, 세상적 능력과 힘)의 사용을 거부하고, 칼로써 정복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 -20장 5절

미숙하지만 사랑을 좇아

마치 초등학교 학예회 때 무대 위에 올라가 선생님을 따라 노래하며 춤추는 1학년 아이들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손을 놀리고 발을 굴러보지만 제대로 따라 하지 못하고 빈번히 틀립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따라 해 보려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모습이 밑에서 보고 있는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아름답고 장하기만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그의 사도서(*서간) 안에서 부르듯이 ‘자유’의 완벽한 법칙은 또한 ‘사랑’의 법칙이다. 인간의 자유는, 사랑 그 자체인 신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을 뿐이고, 인간이, 신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함으로써, 신에게 자신을 떠맡겨, 신이 주는 사랑에 대해, 신을 향한 사랑에 의해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신을 사랑할 때만, 신이 내린 이 선물은, 인간이 죽음과 악 대신 생명과 선을 자유스럽게 선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8장



기억할 선종 사제
차기병(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1988년 2월 2일



기억할 선종 사제
박두환(베네딕토) 신부
1995년 2월 6일

교구/본당

신앙대학

일시: 2월 5일(토)~6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48차 창세기 연수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노트
검사 및 연수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일시: 2월 10일(목) 19:00~13일(주일) 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강사: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
대상: 창세기 성경그룹공부를 수행하고 신청
서를 제출한 청년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 및
18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 완치자,
PCR검사 음성확인자(연수 전 48시간
이내)

접수: 선착순 15명 마감, 참가비 15만 원
문의: 박경호 요한 010·4596·1533
파견미사: 2월 13일(주일) 14:00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아)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마산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생활자원을 위한 사람중심계획-
하나씩, 차근차근
접수: 1월 27일(목)~2월 25(금)까지, 전화 및

방문접수

대상: 발달장애인의 부모님과 사람중심계획
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각 10명
교육기간: ▶액티브서포터양성과정(4월~6월
매주 목, 14:00)
▶부모교육(9월~11월 매주 목,
14:00)
내용: 발달장애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진행
문의: 사회참여지원팀 김민운 05·247·5194~6

기타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의방선교회	2022년 2월 6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마산 교구보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	--	--	---



세례 받은 지 1년

윤혜정 글라라 동화작가/ 가톨릭문인회

성탄절 아침. 꽃다발을 안고 지인의 세례식에 참석했다.

세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세례를 받는 저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에 잠겼다. 바람에 몸을 맡기며 이리저리 날던 민들레 씨앗처럼 이곳 성당에 내려앉은 저들은 굳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진 않더라도 갖가지 사연으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저들의 마음이 1년 전의 내 마음 같을 텐데…….

나도 1년 전 이곳 칠암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당은 올 때마다 남의 집처럼 낯설기만 했다. 미사 시간마다 나는 도저히 흡수될 것 같지 않은 이방인 같았다. 웅성거리는 듯한 기도문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예수님은 막연히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졌다.

그리고 하느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오리무중 상태로 계속 성당을 다녀야 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왔는가? 무엇을 바라고 왔는가?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이었다. 나는 그러한 고민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으로 성당은 주일마다 꾸준히 다녔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듯이.

세례 받은 지 1년.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짙막한 한 문장의 기도문에 위로를 받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다. 그러는 사이 나의 아픈 영혼도 서서히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부족한 나로서는 표현하기가 무색하기만 하다.

그러나 종이에 한 방울의 물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듯이 조금씩 조금씩 나는 하느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또 하느님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시는지 알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사람이란 어찌 보면 하루살이만큼이나 험난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 복잡하고 거친 세상에 내던져져 온갖 생채기가 나는 약한 존재 아닌가.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도저히 내 힘으로는 물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면 어떨까. 그때 구원의 밧줄이 내려온다면 그것을 잡기만 해도 저절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오로지 그 밧줄에 의지만 해도 나는 산다.

하느님이 바로 그 밧줄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어리숙한 나의 신앙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세례 받은 지 1년이 된 지금.

관상, 명상, 그리고 묵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관상과 명상, 그리고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상과 명상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삶의 어떤 변화가 오나요?

성당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관상기도인가요?

필자가 모 출판사의 북 콘서트에 참여했을 때 “관상과 명상, 묵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인들이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모호하게 느끼는 것은 서구인들과 한자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인들의 정서적 언어적 차이에도 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영어의 Contemplation은 ‘관상’으로 번역된

다. 그런데 Meditation은 ‘명상’ 혹은 ‘묵상’으로 번역된다.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Meditation은 ‘묵상’의 개념에 가깝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를 ‘명상’이라고 본다. 사실 ‘관상’이란 용어는 동양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이러한 차이를 갖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마음(心)’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다. 서구인들이 말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mind’인데, 서구인들에게 mind는 ‘머리’에 있으며 이성의 활동을 말한다. 반면, 동양인이 말하는 ‘마음(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heart’(심장, 가슴)이다. 서구에서 말하는 Meditation은 심장으로서의 마음의 활동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마음의 활동이다. 이는 동양의 ‘명상’이라기보다는 ‘묵상’으로 보는 편이 더 낫다. 가령 복음서의 구절을 ‘묵상’할 때, 이성적인 추리를 사용하여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보거나 그 상황 속에 자신을 대비해 몸으로써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어떤 결실을 보게 된다. 이는 동양에서 말하는 명상과 차이가 난다. 이성을 사용하거나 텍스트를 분석하기보다는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워내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관(觀)의 개념과 가깝다. 물론 선 불교에서도 화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명상법도 있다. 그러나 결국 삼매(三昧 Samādhi)를 지나 무(無) 혹은 공(空)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동양, 특히 불교의 명상은 삶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眞我)를 찾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緣起)를 깨닫고 내가 사라져(無我) 해탈에 이르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느님과 지복직관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양의 명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관상은 동양의 명상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 신약성경 안에서 관상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과 일치하는 길로 묘사되고 있다. 가령,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마태 17,1-9),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마리아 여인(요한 4,26), 예수님 곁에 머물던 마리아(루카 10,38-42)는 관상의 예표가 되었다. 동방 교회에서도 관상(theoria)은 ‘하느님을 보는 것’, ‘하느님의 환시 체험’ 등으로 이해되었으며, 하느님과의 일치 상태에 이르는 관상의 과정으로 헤시키즘(Hesychasm)을 가르쳐왔는데 이는 하나 안에서 마음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금욕적 전통에 따른 수행이다. 7세기의 요한 클리마쿠스는 관상을 죄 지은 옛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며 선과 신성을 지닌 우리 본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하느님 현존에 있다면 ‘신화’(神化 Divinization) 되고, 하느님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관상의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 이론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상적 체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난 이가 ‘하느님화’ 되어간다는 의미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점점 닮아 하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 하느님을 체험한 이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책임감으로 이어진다. 참된 사랑의 열매가 없는 모든 기도는 울리는 징에 불과하다. 자기만 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서양의 관상기도 혹은 동양의 명상은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등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수행 방법이다. 절대자 혹은 신(神)의 이름을 부르든, 무(無)를 반복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든 상관없이, 특별한 자세를 하고 일정한 호흡에 맞춰 ‘명상’을 하며 깊은 영적인 영역에서 자기 소멸과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열망은 인간의 영원한 갈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상과 관상기도의 방법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종교 간 대화에서는 ‘관상적 대화’라고 한다.